

시련속의 보람

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수해야했던 지난 날들이 이 글을 씀으로써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나 자신이 과연 이 일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괜스레 머리속을 어지럽힌다.

나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4형제중 막내로 태어나 남들처럼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농사일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농토로 생계를 이어간다는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돈을 벌어야겠다는 어린 생각에 1962년 4월 고향을 등지고 포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반겨주는 이 없는 객지에서 우선 침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 외톨이가 되었다는 설움에 부두 방과제에서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그때 항구를 드나드는 배를 보고 나도 푸른 파도와 싸우는 마도로스가 되어보자는 결심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헛수고였

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녁놀이 검붉게 물들면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인기척이 없는 배에서 배고픈 것을 참고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아침이 되었을때 어떤 신사 한 분이 배에 올라와서는 주인 없는 데서 뭐하느냐며 호통을 치셨다. 나는 어리둥절 겁이 났으나 때를 놓칠세라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결국 그 신사분에 의해 배를 탈 수 있었다. 그 노인은 선주였던 것이다. 그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희열, 마치 바다가 모두 내 품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 날부터 마도로스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태풍과 암초로 인해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자 계속 배를 타야한다는 것이 아찔하고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생활을 버려야겠다는 마

음이 간절하고, 부모 형제가 보고싶다는 생각도 한없이 일어났다.

그 때 우연히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 메리야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나의 길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시꺼먼 연기와 치솟는 불길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 불길을 빨리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소방관들이 활동하는 모습에 시선을 모았다. 어떤 소방관은 불을 끄고 어떤 소방관은 화염 속에 뛰어들어 상품을 밖으로 끌어내고하며 이리 저리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방화복 입은 모습이 한결같이 용감하고 멋있었다.

그렇다. 나도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끄고 부상당한 사람과 불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 주는 용감한 소방관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가 있었던 어느 겨울날, 친구가 소방관이 되어 소방관복을 입고

고향에 다니러 왔다.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소방관이 되고자 했던 입대전의 결심이 떠오르며 소방관복을 입은 내모습과 화재현장에서 활약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내가 할 일은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하는 것 외 달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듬해인 1968년 8월 포항 소방서에 임용되면서 소방관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임용 첫날 나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이겨 나가 방재의 역군으로서 이 한몸을 바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얼마동안은 다행히 화재진압작업에서 큰 고통을 맛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9년 음력 12월 28일 새벽 04:10분경 포항시 대흥동 삼화암맥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매섭고 세찬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의 진압작업은 많은 고통을 느끼게 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관찰을 잡고 방수한 뒤 10분을 경과하면 물 묻은 손장갑과 소방호스가 얼어붙어서 동료와 교대하려면 아예 장갑에서 손을 빼서 인계해야 할 정도였다. 인명피해없이 무사히 진압작업을 끝내고 보니 동료들의 몸과 얼굴은 왕겨와 물이 함께 엉겨붙어 회고 검고해 사람같지 않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해 가며 웃기도 했다.

완전히 진압이 된 17:59분경 철수해서 파출소로 귀소했으나, 몸을 씻을 수는 없었다. 우선 다음 출동을 대비해 새 수관을 적재하고 더러워진 수관을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어둠이 지고 씻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늘진 곳에서 남모르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화재 현장에서 온갖 고난과 위험 속에서 일하면서도 힘든지 모르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 소방인들은 모두 느끼고 있다.

그 간의 각종 화재진화작업을 통해보니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진화작업이 매우 어렵기에 이에 따르는 진압장비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소방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명감이 충만한 소방관과 효과적이고도 충분한 소방장비, 사회구석구석에 까지 인식된 방화의식,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난 1977년 3월 25일 새벽 04:00 화재경계지구인 죽도시장내 부산식육점에서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즉시 소화기를 사용, 진압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웠다. 이 일로 인해 죽도시장의 번영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보니 흐뭇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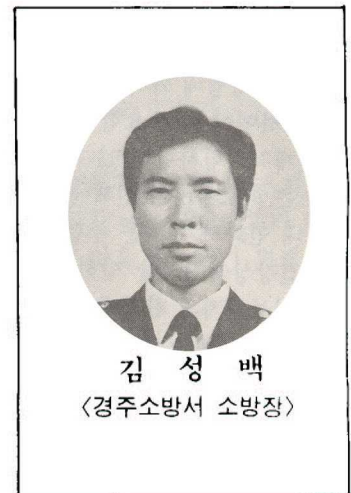
나는 소방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홍보활동은 물론 화재현장 진압작업 시에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운다는 정신으로 위협을 무릅쓰면서 내가 아니면 이 불을 끌 수 없다는 정신과 긍지를 갖고 불과 싸웠으며, 짧은 시간에 불을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한으

로 줄였을 때의 그 보람 역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료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매년 두번씩 벌어지는 체력 단련경연대회 때는 동료들과 합심하여 경기 때 마다 우승하여 서장님으로부터 우승컵을 받을 때도 자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는 순간이 된다.

그동안 여러가지 좋은 일이 많았지만, 19년간의 소방관 생활 끝에 제14회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상은 나에게 새로운 승리감과 긍지를 갖게 하였으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한 몸 바칠 것을 굳게 다짐게 하였다.

끝으로 오늘의 이 영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내무부 당국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가족들에게 이 감격과 영광을 돌리고 싶다. (☺)



김성백
<경주소방서 소방장>